

## 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기리[義理]와 닌조[人情]

닌조는 넓은 의미에서 사랑, 호의, 비애, 동정, 슬픔 등 일반적인 인간 감정을 뜻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행동개념으로 일본적 특징을 계승 여부를 떠나 전통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기리와 함께 쓰임

### □ 일본의 공동모금회

- 일본은 매년 연말이면 빨간색 깃털을 옷에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음
  -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홋카이도(北海島)에서 오키나와(沖縄)에 이르는 일본 전역에서 일제히 공동모금 운동이 펼쳐짐
  - 대부분 역 앞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모금함에 기부를 하면 빨간색 깃털을 옷에 달아줌
  - 각 지역의 주민과 학생들이 주로 거리로 나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호소함
- \* 이러한 모금활동은 1947년부터 공동모금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명실 공히 법제화된 단체로 거듭났으며, 그 후 사회복지사업법은 2000년에 사회복지법으로 개정되어 현재 전개되고 있는 공동모금은 이 법에 준해 실행되고 있음
- 현대를 살아가는 일본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찾아볼 수 있는 많지 않은 사례를 이와 같은 모금운동을 통해 엿볼 수 있음

- 매년 어느 정도의 모금이 가능한지는 차지하더라도 50년 넘게 전 국민이 복지개선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인정을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님
-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금운동이 초기와는 달리 원래의 빛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함
- \* 일본 국민 대부분이 윤택한 삶에 근접해 가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줄었고 남을 위해 인정을 베푸는 데도 예전 같은 열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임

## □ 전통적인 개념의 기리와 닌조

- 닌조(人情, 인정)란 넓은 의미에서 사랑, 호의, 비애, 동정, 슬픔 등 일반적인 인간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부모관계 혹은 애인 관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람에게 대해 품는 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볼 수 있음
- 이러한 닌조는 분명 일본의 전통적인 행동기념으로 일본사람들의 행동지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
- 그러나 현대 일본 사회에서 닌조라는 개념은 이미 오래 전의 것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짐
- \* 일본의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닌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보아도 현대 사회와 연결고리를 찾아 볼만한 사이트를 발견하기 어려움
- \* 일본의 전통적 문화양식이라 할 수 있는 지다이케키(時代劇, 사극) 혹은 라쿠고(落語, 만담)를 듣고 있다 보면 가끔 닌조라는 단어가 들리기는 하지만 현대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같은 단어를 접하는 기회는 드문 경우임
- 일반적으로 일본적 특징을 그것도 계승 여부를 떠나 전통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닌조는 반드시 기리와 함께 쓰임

- 기리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회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의무와 같은 것임
- 사회적 연결고리를 갖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음
- 따라서 기리란 호혜적인 관계를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범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면, 친절을 베푼 은인에게 다시 그 친절을 갚는 것이라 할 수 있음
- \* 이러한 개념은 사회 구성원에게 가령 인정을 저버리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당연시되는 호혜관계를 강요하는 도덕적인 힘을 의미함
- 이러한 일본사람들의 전통적 행동지침이 본격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시점은 일본의 봉건시대로 특히 무사들의 정신 세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남
- 당시 무사들에게 기리란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군에게 봉사하는 의무임과 동시에 주군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잊지 않는 것이었음
- 물론 아직도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기리를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할 의무를 소홀히 하면 신용을 잃게 되고 결국 영원히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됨
-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정은 사회 규범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기리를 지키는 것이 닌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가끔 사회적 의무와 자연스러운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움

## □ 현대 사회에서 기리와 닌쵸

- 과거 봉건사회 무사들이 가졌던 기리의 행동개념은 닌쵸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 자체는 이미 옛것이 되어 현대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 졌음
-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리상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 역시 이러한 의미의 기리는 여전히 남아 있음
- \* 그 좋은 사례를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초콜릿을 건네는 발렌타인데이를 즐기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, 물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날은 연인 간에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,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 고백이 이루어지기도 함
- \* 그러나 주변의 남성에게 의리상 어쩔 수 없이 초콜릿을 주는 것도 우리와 비슷한데, 이렇게 전달되는 초콜릿을 일본에서 기리초코(ギリチョコ, 의리 초콜릿)라고 하며 직장의 남성은 이날 기리초코를 몇 개 받았는가를 놓고 회사에서의 인기 정도를 가늠하기도 함
- 현대 일본사회에서 기리와 닌쵸를 찾아보기는 어려워졌으나 우리가 의리와 인정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그 개념은 지금도 일본사람의 행동지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